

國外研修結果報告書

I. 연수개요	1
II. 기관·단체, 유적지 등 연수 내용	
1. 포르투갈(카보다로카) - 땅끝마을	4
2. 포르투갈(리스본) - 벨렘탑, 발견기념비, 제로니무스수 도원, 로시우광장, 에두아르두7세공원 등 견학	7
3. 스페인(세비아) - 루이사기념공원, 여성복지관, 자전거 도로, 히랄다탑, 대성당, 에스파냐광장 등 견학	15
4. 스페인(그라나다) - 알함브라궁전, 헤네랄리페정원, 알바이 신, 플라멩코 등 견학	25
5. 스페인(코르도바) - 메스키타사원 등 견학	32
6. 스페인(톨레도) - 톨레도대성당, 산토토메교회, 톨레도시청, 톨레도의회 등 견학	37
7. 스페인(마드리드) - 마드리드재래시장, 마드리드시의회, 프라도미술관 등 견학	42
8. 스페인(바르셀로나) - 공영자전거시스템, 구엘공원, 가우디 의 성가족교회 등 견학	47
9. 스페인(빌바오) - 빌바오 효과	56
III. 맺 는 말	63

居 昌 郡 議 會
〔총무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제6대 의회 출범으로 활기차고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 지식 함양과 국제적 경험을 축적하고 의원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
- 서유럽 2개국(스페인, 포르투갈)의 도시공공 디자인과 다양한 역사의 문화유적을 답사, 선진문화 체험과 고대문명의 유적지, 유물의 보존관리실태 등을 견학.
- 스페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문화유적, 포르투갈의 문화유적, 지역 발전을 위한 의회운영 시정운영 및 관광자원개발 등의 관리 현황 및 이용실태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2. 연수동기 및 배경

-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에 서유럽의 지방자치제도 운영 실태를 비교 견학하고, 고대 문화 유적지와 유물관리 현황을 견학하고 선진 사회복지제도 및 도시공공디자인 등을 비교 분석코자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진 관광자원개발 등을 견학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등 비교 접목할 수 있는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

3. 연수기간

- 2010. 10. 6.(수) ~ 10. 13.(수) [7박 8일]
- 여 행 국: 스페인, 포르투갈 (서유럽 2개국)
- 출 국: 10. 18.(수) 14:05
 - 인천 ⇒ 독일 [프랑크푸르트] ⇒ 포르투갈 [리스본]
- 귀 국: 10. 13.(수) 05:30
 - 스페인 [바르셀로나] ⇒ 독일 [뮌헨] ⇒ 인천

4. 연수단(8명)

- 의 원: 5명 (총무위원장 외 4)
- 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외 2)

5. 연수 기관·단체 및 일정

□ 연수지역: 2개국(포르투갈, 스페인)

- 포르투갈(카보다로카, 리스본): 카보다로카의 땅끝마을, 벨렘 탑, 발견 기념비, 제로니무스 수도원, 로시우 광장, 에두아르두 7세공원, 포르투갈 시내 및 휴게소 등.
- 스페인(세비야, 그라나다, 코르도바, 마드리드, 톨레도, 바르셀로나): 루이사 기념공원, 세비야 여성복지관 방문, 자전거도로 및 광장 모자이크, 히랄다 탑, 세비야 대성당, 에스파냐 광장, 황금의 집, 붉은 성 알 함브라 궁전, 헤네랄리페 정원, 알바이신지역, 플라멩코, 메스키타 회교사원, 유대인 거리 및 꽃길, 올리브 농장, 톨레도 대성당, 산토토메 교회, 톨레도 시청, 톨레도 의회, 마드리드 재래시장, 마드리드 시의회, 프라도 미술관, AVE초고속 열차, 지중해, 공영자전거시스템, 구엘 공원, 성 가족 교회, 가우디의 시내 작품들.

○ 세부 연수일정표(7박 8일)

월 일	출발지 (도착지)	시 간	방문지(기관)	업무수행 (견학)내용	비 고
10. 6. (1일차)	인천 → 프랑크푸르트 → 리스본 (14:05출발 LH0713)	08:00(버스) 14:05~23:35 (LH4536)	○ 인천~프랑크푸르트도착 ○ 프랑크푸르트~리스본이동	리스본 도착 (23:35)	거창 출발 (08:00)
10. 7. (2일차)	리스본 (포르투갈)	08:00~17:00 (전용버스)	○ 제로니모스 수도원, 벨렘탑 ○ 에두아르두7세 공원 로시우광장 ○ 세비야로 이동(6시간)	문화유적, 유물 관리실태 견학 등	시설 관계자
10. 8. (3일차)	세비야,그라나다 (스페인)	08:00~19:00 (전용버스)	○ 세비야 대성당, 히랄라탑 ○ 마리아 루이사 기념공원 ○ 세비야 여성 복지관 방문 ○ 에스파냐 광장, 황금의탑 ○ 알함브라궁전, 헤네랄리페	선진 사회복지 분야 견학 및 문화유적관리 실태	시설 관계자
10. 9. (4일차)	그라나다, 코르도바 마드리드 (스페인)	07:00~19:00 (전용버스)	○ 코르도바로 이동(3시간) ○ 메스키타 회교사원 ○ 유대인 거리 및 꽃길 ○ 중식 후 마드리드로 이동 ○ 플라멩코 견학	세계문화유적, 유물 관리실태 견학, 문화탐방 등	시설관계자
10. 10. (5일차)	마드리드,톨레도,마드 리드(스페인)	08:00~18:00 (전용버스)	○ 톨레도 대성당, 엘 그레코 의집, 산토토메 교회 ○ 톨레도 시청, 시의회 방문 ○ 마드리드 시의회 방문 ○ 재래시장 방문 ○ 스페인광장,프라도미술관	시청,의회 운영 실태 견학, 문 화유적,유물 관 리실태 견학, 재 래시장 견학 등	시 청 관 계 자, 시설 관계자
10. 11. (6일차)	마드리드,바르셀 로나(스페인)	08:00~18:00 (전용버스, 열차)	○ 고속열차로 바르셀로나 향발 ○ 공영자전거 시스템견학 ○ 구엘 공원, ○ 성 가족 교회 ○ 시내 가우디 작품견학	문화유적, 유물 관리실태 견학, 시설관리분야(건축 등	시설관계자
10. 12. (7일차)	바르셀로나, 뮌헨 (스페인,독일) (LH4485,LH0718)	08:20~ (전용버스)	○ 08:20까지 공항이동 ○ 10:20바르셀로나 출발 뮌헨도착 ○ 12:00연결편 뮌헨출발	이동	
10. 13. (8일차)	인천, 거창 (한국)	05:30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인천~거창 도착	거창도착 (11:00)	

II. 기관·단체, 유적지 등 연수내용

1. 포르투갈(리스본)

가. 견학 개요

- 견학 일자: 2010. 10. 6. ~ 10. 7.(2일간)
- 견학 대상: 카보다로카, 제로니모스 수도원, 벨렘탑, 에두아르도 7세공원, 고시우 광장 등

나. 주요 방문지 및 연수내용

◆ 포르투갈(Portuguese)

- 수 도: 리스본(Lisbon, 200만 명)
 - 인 구: 약 1천 70만 명
 - 면 적: 92,131km² (한반도의 2/5)
 - 주요도시: 포르토(Porto), 코임브라(Coimbra) 등
 - 주요민족: 이베리아족, 켈트족, 게르만족 및 무어족의 혼혈민족
 - 주요언어: 포르투갈어(Portuguese)
 - 종 교: 가톨릭, 유대교, 개신교 등
-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매우 저렴하고 매력적인 나라이다. 과거에는 해양생활을 했던 나라로, 뛰어난 해변 휴양지, 멋진 도시와 자연경관이 올리브 농장과 포도원, 밀밭 사이로 펼쳐져 있다.
- 포르투갈은 40년간의 독재 정치를 겪으면서 유럽 영향력의 중심과 현대적인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북유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는 여름철 휴양지로 선호되면서 발전하였다.

- BC 700년경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켈트족을 시작으로 8세기에 무어인들이 장기간 점령하면서 문화, 건축, 농업 기술이 도입되었으나 무어인에 대한 저항은 12세기에 그들을 몰아낼 때까지 계속되었다.
- 포르투갈은 15세기에 주앙 1세의 아들 엔리케 항해 왕자의 영도 아래 발견과 정복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스페인에 의해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1640년 다시 독립을 쟁취했으나 이미 쇠퇴 일로에 접어들고 있었다.
- 이어 17세기 포르투갈 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고 거듭되는 내란과 정치적 혼란에 휘말리다 1910년에 왕정이 무너진 후 민주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민주 공화국체제는 1926년에 일어난 군사쿠데타로 단명하고 오랜 독재정치가 시작되었다. 1968년 살라자르가 사망하자 마침내 1974년 반세기에 가까운 독재 정치는 막을 내렸다.
- 그 이후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1986년 EU가입과 1992년 유럽 통화제도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 카보다로카의 땅끝 마을 견학-----2010. 10. 7.

- 유럽대륙 서쪽 끝, 땅끝 마을로 등대와 최서단의 표시로 인하여, 신트라궁 가는 길목에 있어 관광코스 중 하나이다.
땅끝 마을인지라 탁 트인 망망대해 지중해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 한없이 넓은 가슴을 활짝 펼치고 싶은 심정이 든다.



유럽대륙 서쪽끝 카보다로카



포르투갈 땅끝 마을에서

◆ 리스본-----2010. 10. 7.

-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도시는 BC 12세기에 페니키아 인들이 건설했고, 그 후 그리스인, 카르타고인, 로마인, 서고트 족, 이슬람 교도 등이 번갈아 이 도시를 장악하고 지배했다. 그 뒤 알폰소 3세가 국토회복을 완료하고, 1243년 리스본을 수도로 정한 뒤 대항해시대의 포르투갈 전성기가 이 리스본을 중심으로 꽃을 피웠다.
- 15세기 중반부터 해외 식민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재물들로 인해 리스본은 대도시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서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렸으며 1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 그러나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어 버렸는데 당시의 참상은 바이로알투의 교회를 가면 볼

수 있다. 그 후 풍발 후작의 힘으로 부흥을 도모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한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다.

- 현재의 리스본은 지진에서 살아남은 구시가지와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가 공존하는 차분하고 소박한 멋을 지닌 도시이다. 국토를 남북으로 가르며 흐르는 테주 강의 대서양 하구에 자리잡고 있는 리스본은 인구는 206만 명이다. 영어식 명칭은 Lisbon이고, 현지에서는 Lisboa라고 한다.
- 리스본 관광명소: 리스본 중심지, 에두아르두 7세 공원, 로시우 광장, 제로니무스 수도원, 발견 기념비, 벨렘 탑 등

1) 벨렘 탑

- 발견기념비에서 테주 강 하류 쪽으로 1km 거리에 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 있는 이 탑은 당초 물속에 세워졌으나, 테주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물에 잠기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 1515~19년에 건설된 이 탑은 하얀 나비가 물 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누엘 양식의 건축물로, 3층 구조이다. 아름다운 테라스가 있는 3층은 옛날 왕족의 거실로 이용되었으며, 지금은 16~17세기의 가구가 전시되어 있다. 2층은 포대로 항해의 안전을 수호하는, '벨렘의 마리아 상'이 서 있다. 1층은 스페인이 지배하던 시대부터 19세기 초까지 정치범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 스페인의 지배에 저항하던 독립운동가, 나폴레옹 군에 반항하던 애국자,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이 만조 때에는 물이 들어오고 간조 때에는 물이 빠지는 이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옥살이를 했던 곳

이다. 그러나 견학을 한 결과 바닷물과 강이 만나는 곳이어서 인지 주변에 오물이 많이 떠 있어 환경이 벌써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벨렘 탑에서



테주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오염물

2) 발견 기념비

- 제로니무스 수도원 앞 임페리오 광장을 지나 테주 강으로 나가면 발견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바스코 다 가마가 항해를 떠난 자리에 세워졌다는 이 기념비는 1960년 엔리케 항해 왕 사후 500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것으로, 높이가 53m이다.
- 항해 중인 범선 모양을 한 이 기념비에는 수많은 인물 조각상이 줄지어 서 있다. 맨 앞 뱃머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엔리케 항해 왕이고, 그 뒤에는 신천지 발견에 공이 큰 모험가, 천문학자, 선교사 등이 따르고 있다. 엘리베이터로 옥상에 오르면 테주강을 비롯하여 대서양, 아주다 언덕 등 사방이 눈에 들어온다.

- 그리고 기념비가 서 있는 광장에 새겨진 모자이크 무늬의 세계 지도가 보인다. 기념비 지하에는 아트 갤러리가 있어 각종 전람회가 열린다. 특히 이곳 광장의 모자이크 방식의 보도블록은 아주 특이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단순하지 않고 물결 모양, 세계지도 등 같은 재료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포르투갈인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 같다.



발견 기념비에서



세계지도와 특이한 광장바닥 모자이크 견학

3) 제로니무스 수도원

- 대항해시대의 선구자 엔리케 항해 왕자가 세운 예배당에 미누엘 1세가 제로니무스 파 수도사들을 위해 수도원으로 건립하였다. 마치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전과도 같다.
- 레스타우라도레스 광장 Praca dos Restauradores - 리베르다데 대로 남쪽 끝의 거대한 오벨리스크(석조 첨탑)가 서 있는 광장으로 리스본의 중심이다. '레스타우라도레스'라는 이름은 '복고자',

'부흥자'의 뜻으로 1640년 스페인의 지배에 대항해 포르투갈의 독립을 위해 싸운 지사들을 기념하여 붙인 이름이다.

- 수도원 앞 대로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경찰을 보았는데 일명 "자전거 경찰"이라고 하며 특이하면서도 대민봉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골목길 또는 공원 내를 순찰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니 아이디어가 참 괜찮은 것 같아 우리나라도 복잡한 대도시에는 한번 시행해 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제로니무스 수도원



특이한 자전거 경찰

4) 로시우 광장

- 리스본 시가의 '배꼽'에 해당하는 곳으로 리베르다데 대로와 바이사 지구에 맞닿아 있다. 13세기부터 리스본의 중심지로 공식 행사는 모두 이곳에서 행해졌고, 종교재판도 열렸다. 원래 이름은 '동 페드루 4세 광장'인데 Rossio로 더 많이 불린다.

- Baixa지구의 메인 광장으로 18~19세기의 건물이 대부분인 현재의 모습은 풍발 후작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건물들은 지금 외양을 함부로 바꾸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제 모습을 지키고 있다. 중앙의 로터리에는 초대 총독 페드루 4세의 상이 있고 상양쪽의 분수 앞에는 로시우 광장의 풍물이라고 할 만한 꽃 파는 노점들이 보인다.
- 이 광장에는 많은 버스와 전차가 지나가며, 기차역과 지하철 역도 있다. 레스토랑,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재미있다. 포르투갈이 예전에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탓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 이 광장은 광장 바닥을 모두 모자이크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여 예술성이 살아 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로시우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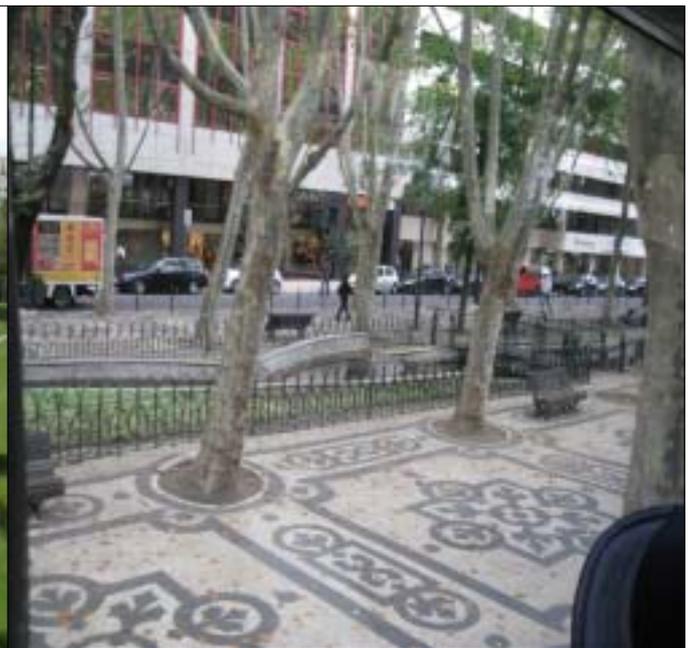
물결 모양의 바닥 모자이크

5) 에두아르두 7세 공원

- 1902년 영국의 에두아르두(에드워드) 7세가 리스본을 방문한 기념으로 조성되었다. 기하학 무늬의 화단이 아름다운 프랑스식 정원으로 리스본 시가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 4~5월이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다. 열대식물로 뒤덮인 아름다운 이곳에는 동굴과 폭포, 연못 등이 있고, 시즌에는 콘서트도 열린다. 공원 정상에서는 리스본 시내와 테주 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 이 아름다운 정원은 도시 위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를 한눈에 바라보며 산책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산동네를 개조하여 공원화하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는 안성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리스본의 도시 보도블록까지 신경쓰는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에두아르두 7세 공원



그림을 그린 듯이 모자이크된 보도블록

6) 포르투갈 시내에서....

-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때 유럽을 주름잡던 나라로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살펴보다 보니
- 시내에 유난히도 벽면을 이용한 광고성 벽화가 많이 있어 가이드에게 물어본 결과 포르투갈에서는 벽화를 이용한 광고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후 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다.
-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전신주나 신호등에 매달아 놓은 쓰레기통이다.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으며 지면에서 띄워놓고 매달아 놓아 청소부들이 청소를 할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쉽게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고 한다.
- 우리나라도 예술성을 살린 작품에 한하여 벽화를 허용해 주고 도시 미관을 반영한 좀 더 실용적인 쓰레기통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벽화를 이용한 광고



전신주와 가로등을 이용한 쓰레기통

7)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전용버스를 타고 스페인 세비야로 이동하는 6시간 동안 한 군데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거치게 되었다.
- 황량한 넓은 대지를 달리는 버스는 시속 100km를 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구간까지의 거리를 환산하여 일정 시간(3시간 정도)달리면 의무적으로 20분에서 30분은 엔진을 끄고 쉬어야 하는 게 법이란다.
- 이렇게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는 과중한 벌금을 내야 한단다.
-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이곳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법으로 통용되고 있고, 휴게소에 설치된 주차장의 덮개는 무척 인상적이면서도 실용적인지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1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2

2. 스페인(세비야, 그라나다, 코르도바, 마드리드, 톨레도, 바르셀로나)

가. 견학 개요

- 견학 일자: 2010. 10. 8. ~ 10. 12.(5일간)
- 견학 대상: 루이사 기념공원, 세비야 여성복지회관, 자전거도로 및 광장 모자이크, 히랄다 탑, 세비야 대성당, 에스파냐 광장, 황금의 집, 붉은성 알 함브라 궁전, 헤네랄리네 정원, 알바이신지역, 플라멩코, 메스키타 회교사원, 유대인 거리 및 꽃길, 올리브 농장, 톨레도 대성당, 산토토메 교회, 톨레도 시청, 톨레도 의회, 마드리드 재래시장, 마드리드 시의회 방문, 프라도미술관, AVE 초고속 열차, 지중해, 공영 자전거 시스템, 구엘 공원, 성 가족 교회, 가우디의 시내 작품들.

나. 주요 방문지 및 연수내용

◆ 스페인(Spain)

- 수 도: 마드리드(Madrid, 470만 명)
 - 인 구: 약 3천 900만 명
 - 면 적: 501,788km² (한반도의 2.3배)
 - 주요도시: 바르셀로나(Barcelona), 그라나다(Granada), 세비야(Sevilla)
 - 주요민족: 가스티야족, 바스코족, 갈리시아족, 안달루시아족
 - 주요언어: 스페인어
 - 종 교: 로마 가톨릭
- 스페인에서 3만~1만 5000년 전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발견되어 그 당시부터 인간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게르만족에서부터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침략을 받아 왔으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5C 중엽에 서고트인들이 이곳에 왕국을 세웠다.
- 이후 15C까지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442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과 아라곤의 국왕 페르디난도의 결혼으로 통일국가를 이루게 된다. 19C에 이르러 나폴레옹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끈질긴 저항운동이 펼쳐졌으나 이후 1936~39년간 스페인 내란이 발생했다. 결과는 프랑코 총통이 이끄는 군부의 승리로 끝나게 돼 1975년 총통 사후까지 독재정치가 계속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된다.
- 현재는 입헌군주국으로 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는 2원제이다.
-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유럽 중에서 농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소맥, 감귤류, 포도, 올리브 등이 유명하다. 또한 680km에 달하는 대서양의 천혜의 어장으로 원양어업 및 근해어업이 모두 활발하다. 대표적인 공업으로는 기계, 조선, 섬유 등이나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이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 세비야----- 2010. 10. 7.~10. 8.

- 안달루니아 지방의 중심도시이자 플라멩코의 본고장, 비제의 카르멘,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의 무대가 되었던 도시이다.
- 세비야는 로마시대에 이미 이 지방의 중심도시 가운데 하나였

으며, 서고트 왕국의 수도였던 시기도 있다. 8세기 이후는 이곳에 침입한 이슬람 세력 밑에서 한층 발전했다. 이 도시의 상징인 히랄다 탑이 세워진 것은 12세기가 끝나갈 무렵이다. 카스타냐왕 페르난도 3세가 세비야를 탈환한 것은 1248년의 일로 대항해 시대에는 신대륙과의 무역항으로 영화를 누렸다.

- 이 번영은 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과달키비르강에 힘입은 바가 크다.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세비야는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여행 거점이 되었다. 1519년 세계일주 여행에 나선 마젤란도 세비야에서 출발했다. 또한 1503년 남미 식민지와 교역을 하는 인디오 통상원이 설립되자 신대륙과의 교역을 독점하게 되면서 세비야는 크게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 이 시대의 세비야는 예술 방면에서도 눈부신 비약을 했다. 인물상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수르바란, 바로크 회화의 거장 무리요와 발데스레알, 궁중화가로서 성공을 거둔 벨라스케스 등의 화가, 세비야 성당에 많은 작품을 남긴 마르티네스 몬타네스, 산 로렌소 성당의 위대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의 작가 후안 데 메사 등의 조각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술가를 배출했다.
- 도시의 중심은 세비야의 상징이기도 한 히랄다 탑, 도시 어디에서나 보이기 때문에 길을 찾는 표시가 되기도 한다, 카테르달, 알카사르, 투우장도 가깝다.
- 세비야는 봄 축제 페리아로도 유명하다 페리아는 매년 4월에 1주일 동안 열리는 축제로 스페인의 3대 축제 중 하나이다. 남녀 모두 옷을 차려입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 이러한 광란이

밤새도록 되풀이되는 열광적인 축제이다. 또한 세비야 하면 플라멩코를 빼 놓을 수 없다. 타블라오는 플라멩코 공연을 볼 수 있는 레스토랑 바이다. 여기서 쇼를 보면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도 세비야의 밤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 루이사 기념공원

- 종려나무나 플라타너스나무로 뒤덮인 푸른 공원에는 하얀 비둘기들이 모여 있고 작은 동물원도 있다. 시내에서 노란 흙은 이곳과 마에스트란사 투우장밖에 없다.
- 이 노란 흙은 퍼다가 투우장에 깔다고 하며, 1893년 남편을 잃은 몸반세공의 부인이 산텔모궁전 정원의 절반을 세비야시에 양도한 것이 그 기원이 되었다.
- 이곳은 벤치들이 모두 스페인을 상징하는 화려한 도자기를 이용한 모자이크로 만들어져 있어 인상 깊었으며, 벤치에 앉아 혼자 노래하는 악사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특색있는 벤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마리아 루이사 기념공원



도자기 모자이크식 벤치

2) 세비야 여성복지관 방문(여성전용)

- 세비야 마리아 루이사 기념공원의 숲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들만 사용하는 복지관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영화상영, 자체 뮤지컬 제작 공연, 플라멩코 춤 및 노래 강의)을 여성협의회 관련 단체가 직영을 하고 있으며(남성 출입금지),
- 모든 프로그램의 유료화로 공격적인 경영으로 복지관의 운영 초점도 전적으로 여성을 위주로 운영(남성 제외)하며, 경영 마케팅을 도입하여 사용료, 관람료 등의 티켓을 판매하며 외부로부터 일체 경영이나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음.
- 향후 거창군 관내 시설물들에 대한 운영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행정에서는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에 따른 운영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



여성을 바라다주러 온 남편들



마리아 루이사 여성복지회관 앞에서

3) 자전거도로 및 광장 모자이크

- 루이사 기념공원 들레 바깥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자동차와 관련 없이 자전거를 타면서 루이사 공원을 구경할 수 있었으며, 폭 2m 정도의 자전거도로는 축소형 차도와 같았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하이킹을 즐기고 있었다.
- 루이사 기념공원 광장은 모두 특색있게 바닥을 모자이크 처리(도색 등)하여 보는 이의 즐거움을 자아내도록 만들었으며,
- 우리나라도 유명 관광지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쉽게 일주할 수 있도록 하고 광장을 특색있게 디자인하여 한번 방문한 사람은 꼭 기억할 수 있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공공디자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4) 히랄다 탑

-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히랄다 탑은 세비야의 상징이다.
- 탑의 높이는 97.5m이며 12세기 말 이슬람교도 아르모아드족에 의해 만들어졌다. 플라테레스코 양식의 종루는 지진으로 파괴된 부분을 16세기에 덧붙인 것이다.
- 안에는 계단이 아닌 경사진 길로 되어 있으며 전망대에는 세비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히랄다 탑



히랄다 탑 앞에서

5) 세비야 대성당

- 세비야 대성당은 수백 년간 이베리아반도를 지배했던 무어인을 몰아낸 스페인사람들이 무어인이 지어놓은 알 모하드 이슬람회당 자리에 그들의 부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지어진 대성당이다.
교회면적으로 유럽에서 3번째로 큰 성당이며 높이가 40m에 달하며 알모하드 사원자리에 1402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해서 100년 후인 1506년에 완공되었다.



세비야 대성당 안



성당 옆으로는 전차가 다니고

6) 세비야 에스파냐 광장

- 에스파냐 광장을 스페인 광장이라고도 하며 스페인 광장은 마리아 루이사 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대성당 동쪽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세비야의 가장 인상적인 장소이다.
- 오늘날 광장에는 정부청사가 들어가 있으며 작은 강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어서 보트를 빌려 탈 수도 있으나 현재는 공사 중이었다.
- 광장은 반원의 형태로 둘러 싸여진 거대한 건물이 있으며 아래 부분은 여러 칸으로 분류되어 스페인 모든 도시의 지도와 특색이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 스페인은 워낙 도시도 많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을 반원의 형태로 거대한 에스파냐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세계가 스페인을 중심으로 뻗어나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추게 건축하였으

며, 지방성이 강한 스페인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하여 자신이 속한 도시의 상징적인 타일 벽화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에스파냐 광장



각 지방 특색을 나타내는 타일 벽화

7) 황금의 탑

- 세비야를 지키는 방어벽이기도 한 과달키비르강을 내려다보면서 서 있는 정십이각형의 위풍당당한 탑, 이슬람교도에 의해 13세기 전기에 세워진 건축물로, 원래는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망루였다.
- 옛날에는 탑의 상부가 황금색 도기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건설 당시에는 강 건너편에도 같은 구조로 된 ‘은의 탑’이 있었으며, 두 탑 사이를 굽은 쇠사슬로 연결하고, 낮에는 사슬을 강바닥 밑으로 가라앉혔다가 밤에는 수면 가까이 끌어올려 적선의 침입을 막았다고 한다.

- 현재는 해양 박물관으로 사용된다. 다르키비르강 연안의 산텔모다리 아래에 있는 정십이각형의 탑이다. 옛날에는 탑 상부가 금색의 도자기 기와로 빛났다고 한다. 13세기 초 강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해군에서 관리하는 작은 미술관이 되었다고 한다.



황금의 탑



황금의 탑과 광장 모자이크

◆ 그라나다----- 2010. 10. 8.

- 화려한 이슬람 문화와 꾸밈없고 성실한 가톨릭 문화가 묘하게 뒤섞인 고도, 한없이 밝은 태양 아래 복잡하고도 기묘한 역사를 새겨 온 이 도시 특유의 애상적인 느낌이 감돈다.
- 기원전 5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도시로서 역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라나다는 이슬람 지배를 받던 8세기 이후에도 발전을 계속하여, 이윽고 13세기 그라나다 왕국이 건국되고 나스로 왕조가 열리면서 그 반영의 절정기를 맞는다. 세계 유수의 역사적 유산인 알함브라 궁전의 건축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다.
- 그 후 15세기 말까지의 약 250년간 그라나다 왕국은 경제와 문화, 예술 등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1492년 코르도바와 함께 그리스도 교도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781년간에 걸친 이슬람 지배의 영향은 이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짙게 남이 있다. 시가는 다로 강 Rio Darm 남쪽의 알함브라, 북서쪽의 알바이신, 북동쪽의 사크라몬테라는 3개의 언덕과, 알함브라의 서쪽에 있는 카테드랄을 중심으로 펼쳐진 변화가로 형성되어 있다.
- 주된 관광 명소는 알함브라지만, 산 니콜라스 성당 Iglesia de San Nicolas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알함브라의 전경이 아름다운 알바이신도 빼놓을 수 없다. 사크로몬테 언덕은 로마[집시]가 사는 지역이다. 타블라오가 모여 있고, 관광객들로 붐비는 장소이기도 하다. 카테드랄을 중심으로 동쪽의 누에바 광장과 서쪽의 트리니다드 광장을 연결한 주변은 음식점 거리로 유명하다.

1) 붉은 성 알 함브라 궁전

- 스페인 최후의 이슬람 왕국인 나사리 왕조의 보아브딜 왕은 스페인 국민의 국토 회복 운동에 굴복하여 평화적으로 이 성을 가톨릭 왕에게 건네주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 이 때가 1492년 1월, 바로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이 있던 해이다. 이로써 스페인은 이슬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근대 스페인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 그라나다를 한눈으로 바라 보는 구릉 위에 세운 주위 3.5km의 이슬람시대의 성보(城堡) 가운데 130×182m의 좁은 부지에 세워졌다. 에스파냐의 마지막 이슬람왕조인 나스르왕조의 무하마드 1세 알 갈리브가 13세기 후반에 창립하기 시작하여 역대의 증축과 개수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현재 이 궁전의 대부분은 14세기 때의 것이다.
- 대리석·타일·채색옷칠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장식의 방이 2개의 커다란 파티오[中庭]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유수프 1세(재위 1331~59)가 건조한 것인데 '미루트[泉]의 파티오'의 1곽으로 사각형의 연못을 따라 한쪽은 공식적인 알현 장소인 '대사(大使)의 집'으로 연결된다. 또 한쪽은 무하마드 5세가 건조한 '사자(獅子)의 파티오'의 1곽으로 8두의 사자가 받치고 있는 분수반(噴水盤)을 중앙에 두고 촘촘히 선 문주(門柱)의 회랑(廻廊)으로 둘러싸이고, 천장과 벽면은 아라베스크의 아름다움으로 알려진 '두자매의 방'을 비롯해 주위의 각실(各室)과 함께 매력이 넘친다. 변화가 많은 아치, 섬세한 기둥, 벽면 장식 등 모두가 정교하고 치밀하여 이슬람 미술의 정점을 형성하고 있다.

- 이 궁전은 에스파냐가 그리스도교도의 손으로 빼앗은 뒤에도 정중하게 보존되었고, 18세기에 한때 황폐되기도 하였으나 19세기 이후에 복원, 완전하게 보전하여 이슬람 생활문화의 높이와 탐미적인 매력을 오늘날에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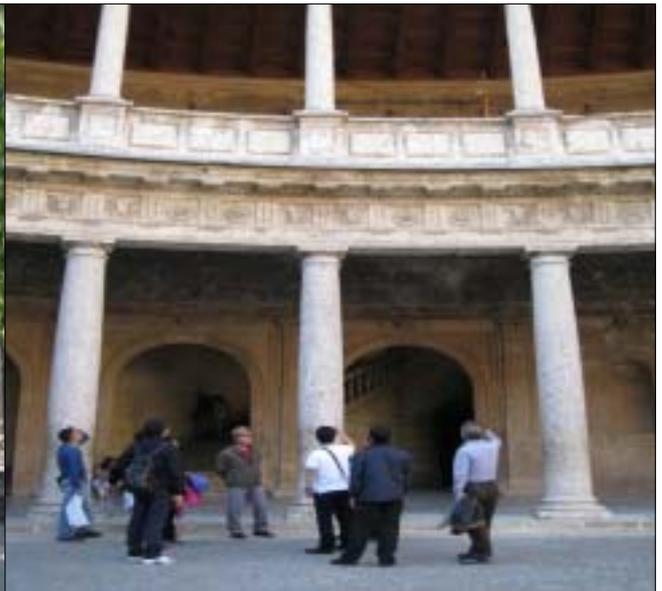
알함브라 궁전 내부



알함브라 궁전 외벽



알함브라 궁전 입구



알함브라 궁전 내의 저택

2) 헤네랄리페 정원

- 왕궁의 동쪽 약간 떨어진 곳에 있고, 입구로부터 사이프러스 나무에 둘러싸인 통로가 길게 뻗어 있다. 그라나다 성주가 14세기 초에 여름 별장으로 만들었는데, 밝은 햇빛에 반짝이는 분수와 맑은 물이 여행자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준다. 정원 안에서도 특히 아세키아 뜰이 돋보인다. 작은 운하 주위에서 뿜어내는 크고 작은 분수와 흐르는 물이 한결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번갈아 핀다.
- 물이 귀한 땅(아프리카, 중동)에서 살아온 이슬람교도들의 오아시스에 대한 열망은 곳곳에 연못과 분수를 만들어 놓았다. 왕의 여름 별궁인 헤네랄리페에서는 아치형으로 물을 뿜는 분수와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다. 알함브라 궁전에서 가장 뛰어난 중정(中庭)으로 손꼽히는 왕궁의 아라야네스의 안뜰은 정확한 대칭구조를 이루는 건물 중앙에 사각형의 연못이 있다. 또 수로를 둘러싸고 화려하게 피어 있는 예쁜 꽃과 정성껏 가꾼 푸른 정원수는 물이 있는 경관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슬람 사람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헤네랄리페 정원(좌우 대칭 건물)



아름다운 헤네랄리페 정원 벽면

3) 알바이신 지역

- 알바이신 부근 바로 위에는 ‘신성한 언덕’ 이라는 뜻의 사크로몬테 언덕이 있다. 그 곳은 예로부터 집시들이 등지를 틀고 살았던 지역인데, 아직도 독특한 형태의 동굴식 주거 형태가 남아 있다.
- 인도에서 이슬람의 서진(西進)과 함께 스페인 땅을 밟은 집시들은 알함브라 궁전이 함락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궁전의 내부 구조와 병사들의 배치 상황을 담은 정보를 에스파냐 측에 넘겨주었던 것이다.
- 에스파냐 왕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사크로몬테를 그들의 근거지로 만들어 주었다. 이곳 집시들은 주로 동굴 속에서 살지만 집의 정면만큼은 여느 주택처럼 꾸며놓아 처음 보는 사람은 일반 주택이거니 생각하게 된다.



알바이신 지역



알바이신 지역 전경

4) 스페인의 명물 플라멩코

- 플라멩코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8현을 포함)의 전통적인 민요와 향토 무용, 그리고 기타 반주 세 가지가 일체가 되어 형성하는 민족예술로서, 보통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지방의 개성적인 민족 감정과 기백이 풍부하고 힘차게 표현된 민족예술이다. 본래는 '콰드로 플라멩코'라 한다.
- 스페인의 민족무용은 그리스·로마의 고대부터 중세의 아라비아 시대를 거쳐 전해진 것이 근대에 와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매혹적인 춤이다.
- 플라멩코 무용(바일레 플라멩코, Baile flamenco)은 그 발달 과정에서 사회생활의 근대화에 따라 대중이 이 무용을 돌보지 않게 되었을 때 집시가 대신하여 전승과 발전에 힘썼기 때문에, 그 형식에는 집시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 순수한 플라멩코에서는 캐스터네츠를 쓰지 않고 사파테아드(구두 소리), 팔마(손뼉치는 소리), 피트(손가락 통기는 소리)로 구성되며, 콰드로 플라멩코에서는 관중의 할레오(장단을 맞추어 지르는 소리)도 섞여 열광적인 정경을 전개한다.
- 이 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심경을 위하여 추는 것이라고 집시들은 말한다. 그리고 플라멩코는 전 세계의 민족무용 중에서 가장 프로페셔널(직업적인)한 기교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 플라멩코 기타(Guitarra flamenca)는 본래 민요 및 무용의 반주 악기이나, 그 풍부한 음악미에 의하여 오늘날에는 기악 부문에서

독주악기로 취급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장르이다. 라몬 몬토야가 1938년에 파리에서 처음으로 플라멩코 기타 독주회를 열어서 훌륭한 악기임을 인정받은 이래 많은 명수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은 온 세계에 애호가가가 늘고 있다. 플라멩코 기타는 민요춤곡과 더불어 발달하였고, 안달루시아 민족의 애수가 담긴 음악 감정이 넘쳐흐르고 있다.

- 이 악기의 특색은 화려하고 상쾌하며 급격한 변화에 찬 음조이다. 또 일반음악에는 없는 복잡한 리듬을 교묘하게 내는 몇 개의 특수주법 등은 현악기 연주법에서는 진귀한 기교이다.
- 특이한 점은 플라멩코에서는 기타의 연주나 민요, 무용의 악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구전되고 암기되어 연주된다는 점이다. 단순한 5선보로는 복잡하고 난해한 민족음악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클래식 기타와 모양이 거의 같으나 골폐판이 붙어 있다.



플라멩코 공연 모습 1



플라멩코 공연 모습 2

◆ 코르도바----- 2010. 10. 9.

- 코르도바는 기원전 식민지 시절부터 안달루시아의 중심지였다.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의 가정교사이자 철학자로도 유명한 세네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 8세기에 이슬람교도가 침입하여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되자 코르도바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이슬람 왕국의 중심지로 크게 발전해 갔다.
- 929년 칼리프 선언을 한 아브드 알라흐만 3세 시대에 코르도바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당시 코르도바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고 모스크는 300여 개가 넘었다고 한다.
- 문화적으로도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유대교의 3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융합해 감으로써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융성기를 맞이했다.
- 또한 이슬람권에서는 귀중한 문헌이 반입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은 이 도시를 통해 유럽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분열되고 국토 회복운동에 의해 이슬람교도들이 완전히 밀려나자 코르도바는 점차 쇠퇴해 갔다.
- 현재는 인구 30만 명의 조용한 도시이지만 메스키타나 유대인 거리 등에 당시의 번영을 말해 주는 흔적이 남아 있다.

1) 메스키타 회교사원

- 스페인 이슬람교의 중심지였던 메스키타 회교사원(Mezquita)
영국 작가 제럴드 브레넨은 이 인상적인 아라비안 모스크를 스페인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평했었다.
- 23,000m²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회교사원이며 로마, 고딕, 비잔틴, 시리아, 페르시아 요소들이 혼합된 칼리프 스타일로 모든 아라비안, 라틴 아메리카 건축물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메스키타 회교사원은 스페인 이슬람교의 중심지였다. 785년과 787년 사이에 건축된 건축물로 점차적으로 개축되어 여러 가지의 다른 건축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16세기에 가톨릭 성당이 메스키타의 중심지에 지어져 가톨릭과 이슬람교의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 사원 안에는 화강암, 벽옥, 대리석으로 된 850개 이상의 원주가 천장을 받치고 있어 숨이 막힐 듯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화려하게 장식된 미라브(Mirab)과 기도하는 사람 벽감이 메스키타 회교사원의 또 다른 볼거리이다.
- 기도하는 사람 주위의 넓은 판석은 종교 순례자들이 그들의 무릎을 대고 일곱 번 돌았던 곳임을 알리고 있고 나무로 장식된 높은 천장의 대칭적인 심벌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 이 모스크는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운 아브데라만 1세가 바그다드에 뒤지지 않을 만한 수도를 코르도바에 만들려고 785년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 이 모스크의 전신은 서고트족이 사용하는 교회였다. 그 후 세 번의 확장에 의해 모스크본래의 대칭형은 없어졌다. 이 건물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카를로스 5세가 카테드랄을 크게 개조했기 때문이다. 어슴푸레한 가운데 적과 백으로 구분되어 칠해진 아치가 눈을 현혹시킨다.



메스키타 회교 사원 내 아치형 기둥



메스키타 회교사원 지붕장식



메스키타 회교사원 내 천장 장식



메스키타 회교 사원 내

2) 유대인의 거리 및 꽃길

-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유대인 거리, 이곳에는 스페인에 3개밖에 현존하지 않는 시나고그(유대회당, 나머지 2개는 톨레도에 있음)가 남아 있으며, 벽 한 면이 정교한 석고 조각으로 되어 있다.
- 거리 남쪽, 메스키타에서 좁은 길로 들어간 곳에는 양쪽 흰 벽에 예쁜 화분들이 가득 걸려 있고, 붉고 흰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유난히 아름다운 골목길이 나온다. 이곳이 “꽃의 골목”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언제나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로 붐빈다.
- 단순히 30m 정도의 골목길의 하얀집에다 화분을 내다 걸어놓았을 뿐인데 유대인의 거리, 꽃길이라는 메리트로 역사성을 부여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스페인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 같다.
- 또한 이 일대는 코르도바 구시가 대부분의 지역에도 해당되는 얘기이지만, 표적으로 삼은 사람의 뒤를 바짝 따라가다가 틈을 노려 지갑을 슬쩍하는 불량배들이 많기로도 유명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대인 거리에서



유대인 꽃길에서

3) 광활한 올리브 농장

- 코르도바에서 마드리드로 오는 길은 5시간을 달리는 길이었다. 차창가에 보이는 광활한 대지 위에 올리브 농장이 끝없이 펼쳐지며, 이 큰 농장의 올리브는 모두 수작업으로 수확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수확철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거 고용하여 온 들판에 사람들로 붐빈다 한다.
- 스페인의 올리브는 그 품질과 생산량이 세계 1위라고 하며, 스페인이 올리브 최대 생산국이 된 것은 원래 척박한 땅이라 비도 잘 안 오고, 우리나라 썩비력과 같은 땅 성분으로 되어 있어 올리브를 제외한 식물은 거의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차를 몇 시간을 달려도 산 하나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지에 온통 올리브 나무만 심겨져 있었고 가끔씩 소와, 염소 모습 외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 스페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게으르고 낙천적이라 우리나라 사람같이 부지런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에 산다면 어떻게 하든 노력하여 고소득을 올릴 거라 여겨지며 우리나라 국민성의 우월함을 다시 한번 느껴본다.



끝없는 올리브 나무



산 하나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지

◆ **톨레도**----- 2010. 10. 10.

-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고도 톨레도. 중세의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타호강이 에워싸듯이 흐른다. 스페인의 대표적 화가 엘 그레코의 도시이기도 하다.
- 로마시대에 성채 도시였던 톨레도는 6세기에 서고트 왕국의 수도로서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711년 이슬람 왕국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이어 레콘키스타 운동으로 1085년 알폰소 6세에 의해 탈환되었다.
-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교도와 이슬람교도, 1492년 국외 추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유대교도들이 이 도시에 공존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톨레도의 문화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문화가 융합되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슬람 문화가 톨레도의 건축 양식에 미친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 톨레도의 중심은 소코도베르 광장이다. 광장 일대는 카페나 바르가 모여있는 톨레도 최고의 변화가이다. 톨레도의 거리는 마치 미로처럼 서로 얽혀 있어 골목 안에서 길을 잃기 쉽지만 이 소코도베르 광장과 도시 어디에서나 보이는 카테드랄이 표시판 역할을 한다.
- 1561년 수도가 마드리드로 옮겨지면서 정치·경제의 중심에서 멀어졌으나, 톨레도는 여전히 스페인 가톨릭의 대교구로서 종교의 중심이라는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카테드랄 외에도 교회나 수도원 등 종교와 관련된 시설이 많다.

1) 톨레도 대성당

-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톨레도에 위치해 있는 사원으로 스페인 가톨릭의 총본산이다.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은 프랑스의 고딕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266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493년에 완공되었으며, 길이 113m 폭 57m 중앙의 높이가 45m로 완공된 후에도 수차례 증개축을 했지만 지금도 기본 골격은 변함이 없다.
- 중앙에 있는 면죄의 문, 왼쪽에 있는 시계의 문, 오른쪽에 있는 사자의 문으로 되어 있는 3군데의 입구가 이색적이다. 대사원의 내부는 22곳에 달하는 예배당과 신약 성경과 성도를 주제로 한 스테인드글라스, 보물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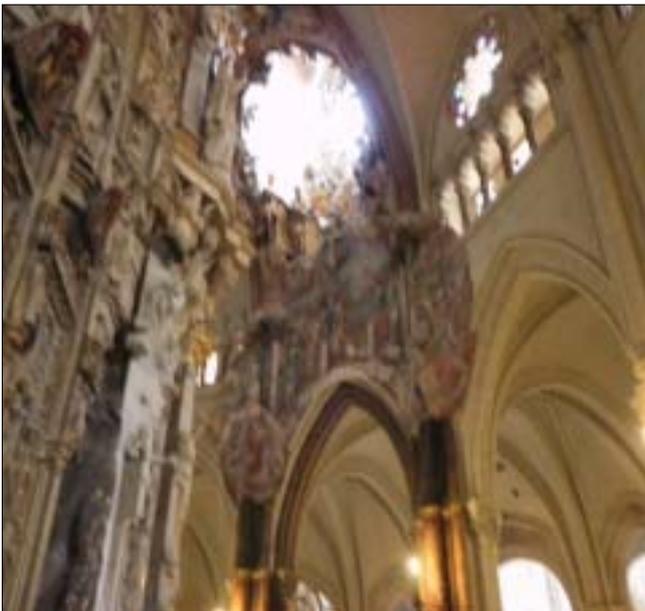
톨레도 대성당 안



톨레도성당 바깥

2) 산토토메 교회

- 1586년에 완성된 엘그레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그림이 있어 유명한 산토토메 교회는 세계의 관광객들이 그림을 보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이 그림은 상하 2단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단부는 천상계를 하단부는 지상계를 상징하고 있다.
- 중앙에는 천사가 팔을 감싸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는 오르가스 백작의 혼을 표현한 것이다.
- 이 교회는 천장을 뚫어 빛의 각도에 따라 교회의 신성한 조각등이 시시각각 아름답게 연출되도록 설계하여 참 인상적이었고 앞선 건축기술에 대한 감탄사까지 자아내게 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훌륭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과 예산에 급급하여 건축하기보다는 유럽의 건축물처럼 수년에 걸쳐 짓더라도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많이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천장을 뚫은 산토토메 교회



성인들로 조각해 놓은 산토토메 교회

3) 툼레도 시청

- 방문한 날이 일요일인지라 당직자만 있고 실무자들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스페인의 옛 수도답게 고풍스러운 도시로서 역시 오래된 건물을 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시청 앞 광장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많았다.
- 시청은 종합적인 정책과 민원부분만을 결정 담당하고 실질적인 일은 자체 유관기관에 위임하여 집행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같이 종합행정을 하는 것과는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았다.
- 우리나라도 스페인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관공서 주변을 공원화하여 주민의 쉼터로 사용되면서 휴일에는 휴식공간으로 즐기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으며,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숨 쉬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툼레도 시청 직원과 함께



툼레도 시청

4) 톨레도 의회

- 스페인은 단일국가이지만 연방국가의 주정부와 같은 지역정부를 구성하여 강력한 자치권과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지역 간 갈등문제를 잠정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기초의회는 시장, 기초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 5천 명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집행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장과 다른 지방의원을 모두 합쳐 총 기초의원의 1/3을 넘지 않는 인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한다.
-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집행위원을 자유롭게 지명하며 행정기관의 활동을 감독한다. 시장은 250명 이상의 기초정부에서는 정당명부에 의하여 다수당 지방의원 후보명부에서 지방의원들에 의하여 간접 선출한다.
- 주요재원은 사업소세와 재산세, 사용료 및 수수료 중앙정부의 포괄교부금, 지방채 등이 되며 중앙정부 58.1%, 지역정부(주정부) 28.2%, 기초정부 13.1%이다.
- 의회에서 선출된 시장의 권한은 자치경찰권, 공무원 임명권을 행사하고 임기는 4년이며 기초의원 중 도의원이 되고 도의원 중 국왕이 지역도지사를 임명하고 도의원 중 주의원이 임명된다.
- 이상과 같이 스페인의 지방자치의회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회와 달리 지방의회 중심의 정책집행력을 보장해 주고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방의회중심의 정책집행력과 책임성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톨레도 시의회 앞에서



수리 중인 톨레도 시의회

◆ 마드리드----- 2010.10.10. ~ 11.

- 이베리아 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마드리드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스페인의 수도. 정치·경제의 중심도시이며, 스페인을 대표하는 현대적 문화도시이다.
- 마드리드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1561년 펠리페 2세가 스페인 왕국의 수도로 정한 때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수도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해발 고도 635m에 위치하여 유럽 각국의 수도 중에서 가장 지대가 높다. 마드리드는 19세기 후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해, 20세기에 이르러 공업이 발달한 현대적인 수도 기능을 완비하게 되었다.
- 역사가 짧지만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왕궁으로 18세기 부르봉 왕조의 번영을 반영한 건물과 내부의 소장품은 중후한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프라도 미술관을 비롯한 수많은 미술관과 교회에는 며칠 동안 감상해도 모자랄 만큼 작품이 많아,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일반여행자도 둘러보면 좋다.

- 시내 중심부인 푸레르타 델 솔을 기준으로 서쪽에 왕궁과 마요르 광장, 동쪽에 프라도 미술관과 아토차역까지 에워싸는 구시가지 일대에는 수많은 바르와 레스토랑, 타블라오 등이 밀집되어 있어 밤마다 마드리드 젊은이들의 열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 낮 동안에는 마드리드는 그란 비아와 세라노 거리에서의 쇼핑, 시벨레스 광장에서 파세오 델 프라도까지의 산책 등 밤과는 또 다른 차분한 분위기이며 또한 지하철 그란 비아역에서 시립 박물관으로 통하는 푸엔카탈 거리 주변은 마드리드의 유행을 선도하는 새로운 쇼핑가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관광 포인트는 대부분 도보로 다닐 수 있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면 시간을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마드리드의 매력을 접할 수 있다.
- 이 도시의 매력은 건물이나 거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투우, 축구, 플라멩코라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구경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마드리드의 치안은 결코 좋은 편이 아니므로, 대도시라는 점 때문에 방심한 채 거리를 다녀서는 안 된다.

1) 마드리드 재래시장

-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의 재래시장을 중간에 들러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였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재래시장은 사면이 개방형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내부에는 우리나라의 난전에 해당하는 스탠드 바 정도의 가게들도 많이 있었고 사면을 유리로 만들어 내부를 바깥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었으며 특히 천장 부분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이중 지붕식으로 설계하였으며, 과일부터 해산물까지 조그마하게 코너별로 장사를 하고 있었음.
- 재래시장이라기보다는 재래식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옳을 만큼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세련되게 꾸며진 시장이라 하루종일 시장 안에 머물러도 지겹지 않을 것 같았다.

- 우리 지역도 이렇게 사면이 트이게 코너별 품목별 배치를 한다면 좁은 공간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재래시장 내부에서

재래시장 전경

2) 마드리드 시의회

- 스페인의 의회는 보통 코르테스로 호칭되며 국회의회로 불리워진다. 마드리드 시의회는 레알마드리드 훈련장을 3억 5천 달러를 들여 조성하고 체질량지수(BMI)가 최소한 18이 되는 모델들만 패션쇼에 참가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일반의회의 역할보다도 훨씬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지역의회를 중심으로 기관통합형 조직과 내각책임제 형태의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책집행을 책임지고 있다.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단순히 집행부의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책책임을 지고 있는 스페인 의회와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마드리드 시의회 앞에서



마드리드 시의회 전경

3) 프라도 미술관

-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며, 회화관으로는 세계 최대의 미술관이다. 마드리드문화관광의 최고 명소이기도 하다. 비야누에바에 의해 1819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된 미술관으로 소장품은 약 6,000점으로 전시되는 것은 3,000점에 이른다.
- 12~18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으며 특히 16~17세기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이중 스페인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랑드르,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의 작품들도 다수 전시되어 있다. 1층은 스페인회화, 플랑드르 회화, 이탈리아 회화, 고야의 일부작품, 조각이 전시되어 있으며, 2층은 이탈리아 회화, 다수의 조각 작품, 다수의 고야작품, 스페인회화가 전시되어 있고, 전시작품의 위치는 수시로 바뀐다.

- 2층의 고야 전시실에 있는 <옷을 입은 마야 La Maya Vestida> 와 <나체의 마야 La Maya Meninas>, 그레코와 보슈의 그리스도를 테마로 한 종교화 등은 반드시 감상해야 할 걸작들이다. 실내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사진 한 장 못 찍었지만 어마어마한 규모로서 이어폰을 끼고 설명을 들어야 할 만큼 전 세계의 관람객 또한 많았으며 미로 같은 건물 구조에 자칫 길을 잃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볼거리도 풍부하여 우리나라에도 이런 박물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프라도 미술관 앞에서



프라도 미술관 정문 앞에서

◆ 바르셀로나-----2010.10.11.~12.

- 바르셀로나는 인구 약 170만 명의 스페인 제2의 도시이다. 지역은 크게 구시가와 신시가로 나뉘고 다시 그 안에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 관광명소가 많아 인기 명소만 둘러봐도 3일 정도, 구석구석 돌아본다면 최소 1주일엔 걸린다고 한다. 하루 만에 이 도시를 둘러보고자 한다면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구엘 공원을 구경하고, 그라시아 거리에 있는 2채의 가우디건축물, 고딕지구의 카테드랄과 그 거리를 둘러본 다음 피카소 미술관, 람 블라스 거리를 걸어 몬주의 언덕으로 가는 코스가 좋다고 한다.
- 고딕지구에는 13세기~15세기의 건축물이 지금도 그 당시의 형태대로 남아 있다. 카탈루나 자치정부 청사를 비롯해 시청사 등도 있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구이다. 고딕 지구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람 블라스 거리는 녹음이 우거진 가로수가 시원한 산책로, 꽃과 새를 파는 노점이나 거리의 예술인 등이 북적대며, 온종일 오고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또한 동쪽에 있는 시우타데야 공원 안에는 가우디가 만든 분수대, 현대 미술관, 세계에서 오직 한 마리 밖에 없는 흰 고릴라가 사육되는 동물원 등이 있다.
- 신시가지 중심가는 그라시아 거리로 로에베 같은 고급 부티크나 패션 전문점, 카사 바트요, 카사 밀라 등의 가우디 작품을 비롯한 모더니즘 건축을 많이 볼 수 있다. 리야, 센트로 페드랄 베스 등의 쇼핑 아케이드와 루이 비통, 에르메스, 구찌와 같은 고급 부티크가 즐비한 쇼핑가를 이룬다.

- 1992년에 개최된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주경기장이 있는 곳으로서 몬주익이 있다. 이곳은 올림픽 스타디움, 기념공원, 기념관, 미로미술관, 그렉 극장, 몬주의 성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 시우타테야 공원의 남쪽에 있는 해안 구역은 바르셀로나 네타로 불리는 지구로서 예로부터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곳이며, 지금은 매립되어 해안선은 변모했지만 그 당시부터 영업하던 많은 해물 요리 레스토랑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 항구 내에 돌출된 형태로 위치한 매립지에는 아이맥스 입체 영화관, 수족관, 부티크, 음식점, 디스코 텍 등이 입점한 복합 건물 마레마그눔이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
- 바르셀로나는 대도시인 만큼 야간 업소도 많이 있지만 스페인다운 오락이라면 투우와 플라멩코, 축구를 꼽는다. 축구는 일정한 시즌이 있지만 플라멩코는 일 년 내내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축구는 같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는 양숙관계로서 축구경기가 있는 날은 온 시내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못해 광적이라고 한다.
- 마드리드가 연고지인 레알 마드리드팀은 스페인의 수도인 만큼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어 세계에서 제일 몸값이 많이 나가는 선수를 대량 영입해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맞서는 FC 바르셀로나팀은 순수 민간 지원팀으로서 민간인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팀으로 대조적이다.

1) 바르셀로나 행 AVE 초고속 열차

- 바르셀로나로 향하기 위해 초고속 열차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규모나 시설, 속도 면에서는 우리나라 KTX와 별반 다른 점이 없었으며 고속 열차는 도리어 우리나라가 더 앞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어깨가 으쓱해짐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항공기 탑승과 같이 일일이 휴대품을 다 검사한다는 것이다.

좀 불편했지만 깨끗한 역 청사 등은 본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았다.



AVE열차 안에서



AVE열차 역사 내에서

2) 바르셀로나 지중해에서

-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여 중식시간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지중해 바닷가를 방문하였다. 푸른 파도와 함께 끝없이 펼쳐지는 깨끗한 바다, 수많은 요트 등 말로만 듣던 지중해였다. 이곳으로 세계의 갑부들이 모여들어 요트를 즐긴다고 하니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스페인이 좀 부러운 생각이 들었으며, 바르셀로나는 휴양 도시 겸 환경도시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수많은 요트 앞에서



지중해 방파제 위에서

3) 바르셀로나의 공영자전거 시스템

- 바르셀로나는 친환경 도시로서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빨간 자전거는 카드를 사용하여 이용을 하고 있었으나 관리 측면에서 고장 난 자전거가 많은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시내안내도에서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시내를 안내하여 버스 승강장 같이 운영하는 모습이 바르셀로나가 친환경 도시, 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 우리나라도 이런 무인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교통 체증, 친환경, 건강, 에너지절약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아 본격적인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시책으로 선정되어 장기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거창군도 국가 시책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수많은 공유자전거 거치대



카드 인식 자전거 사용 시스템

4) 구엘공원

- 영국의 전원도시를 동경했던 구엘의 투자로 가우디에 의해 만들어진 공원으로 지중해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 착공 초기에는 미래의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설계 되었지만 건설 도중 자금난으로 당초 60호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30호밖에 짓지 못했으며 1922년부터 공원으로 조성되어 바르셀로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 가우디의 건축 이상이 숨 쉬고 있는 곳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선명한 타일로 장식된 외관은 마치 동화 속의 집처럼 느껴진다. 공원 위쪽으로는 86개의 기둥이 늘어선 공간 천장의 모자이크를 비롯해서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벤치는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 구엘 공원의 오른쪽에는 있는 가우디 박물관에는 가우디의 유품들과 데드마스크가 있으며, 그가 직접 디자인한 의자와 테이블 등 특이한 형태의 가구들을 볼 수 있다.

-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어린이 장난감 같은 건축물이 균형과 대칭을 이루며 서있었는데 좁은 소견으로도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어떻게 저렇게 균형을 이뤄가며 건축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작 가우디가 살았다는 저택은 평범한 저택으로 보여 건축과 미학을 갖추기 위해 작품 활동에 전념한 가우디의 지혜가 더욱더 빛나 보였으며,
- 가우디가 재력가인 구엘을 만나 세계적인 건축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수한 건축가가 많은 만큼 뜻있는 독지가가 많이 나타나 건축가를 양성해 내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수준급의 건축물들을 많이 세울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균형을 이룬 가우디의 작품



구엘 공원의 상징 도마뱀 앞에서



균형을 이룬 가우디의 작품



가우디 건축물의 천장

5) 가우디의 성가족 교회

- 가난한 신자들의 민간단체인 '산 호세 협회'에 의해 1882년에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1891년부터 안토니오 가우디가 건축에 참가하였다. 가우디 사후인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완의 교회이다.
- 현재 완성된 부분은 착공을 시작한 지 100년 만인 1982년에 완성된 것으로 지하예배당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안쪽의 107m 높이의 쌍탑과 양측의 98.4m 높이의 탑이다.
- 앞으로 건설될 부분은 170m 높이의 중앙탑과 그 뒤의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140m의 탑이다. 따라서 가우디의 성가족 교회의 완성은 앞으로 100~2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는 4개의 탑과 그리스도의 강단을 그린 살아있는 듯한 조각들이 이색적이다. 건물 내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것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다. 지하 예배당은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교회 건축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가우디의 묘도 이곳에 마련되어 있다.
- 가우디가 사후 공사 진행에 약간의 차질이 빚어졌으나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에 무언가 완성을 위한 목표가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 가우디의 성가족 교회를 본 느낌은 충격 그대로였다. 익히 세계적인 건축가인 줄은 알았지만 그 규모와 형태에서 감탄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 4차원적인 건축 양식과 도대체 어떻게 건축물의 균형을 잡아 건축을 하였을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하였는데 교회로 입장하면서 진열해 놓은 가우디의 행적을 보고 가우디의 아이디어에 감탄사가 절로 났다. 건축물의 균형을 잡기 위해 건축물의 모형을 반대(거꾸로)로 만들어 그 각 지점에 실에 추를 매달아 바닥에는 거울을 깔아 직접 실험을 해가면서 균형을 잡아 나갔다 하니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큰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가 없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가우디의 머리에서 직접 구상하여 건축을 하였다고 하니 정말 놀랄 일이었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아직도 헌금에 의해 공사를 계속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도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을 지은 건축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우디의 건축물처럼 설계도도 없이 오로지 전해들은 구상만으로 사후에도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우디에 대한 존경심이 앞섰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사고를 지닌 가우디라는 한 개인이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성가족 교회 전경



성가족교회의 내부 천장

6) 바르셀로나 시내 가우디의 작품들

- 바르셀로나 시내에는 아직도 가우디의 작품들이 많아 있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로서, 커피숍, 음식점, 호텔 등 많은 작품들이 시내에 있으며,
- 건물 하나하나의 작품성을 특이하고 빼어나 주위 건축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고 건축양식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눈에 확 띄었으며 가우디의 머릿속에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 가우디 건축물 하나로도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환호성을 지르며 칭찬을 하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의 건축가의 힘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표본을 보는 듯했다. 우리나라도 많은 인재들이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인재양성에 힘을 써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가우디 건축물의 음식점



가우디 건축물의 호텔

6) 빌바오 효과

- 일정상 방문을 하지 못하였지만 매체를 통하여, 가이드의 안내를 통하여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시에 대한 빌바오 효과에 대하여 소개코자 한다.

○ 빌바오시

- 위치: 에스파냐 바스크 자치지방 비스카야주
- 면적: 41.3km²
- 행정구분: 8District
- 인구: 353,168명(2007년 기준)

○ 지역특성 및 현황

- 빌바오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장점을 활용하여 1600년까지 메리노 울(merino wool)을 수출하는 스페인 북부의 가장 중요한 항구이자 경제,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였으며, 1602년에는 비스케이 지방의 수도가 되었다. 17세기에는 철광석을 원료로 한 제품들을 생산하여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18세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들과의 무역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산업 혁명기를 거치면서는 철강 산업의 주요 운송 창구이자 선박 제조의 중심으로 각광을 받으며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중공업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20세기 초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철강자원의 고갈과 1970년대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도시의 양적 팽창은 멈추게 되었고, 전통 공업도시로서 지녔던 지역 경제 기반도 붕괴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정치적인 바스크 독립문제와 결부되어 침체의 늪에 빠졌다.

- 얼핏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게 된 것이 모든 마법의 원천으로 보이지만, 빌바오의 강변은 도시 자체를 진짜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로 가득하다. 빌바오의 변신은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봐 온 주변인들에게 더욱 놀라운 현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곳은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바스크인들의 본거지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남부의 피레네 산맥 주변에 살고 있는 바스크인들은 주변과 완전히 고립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인도 유럽어족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과 아무런 친족 관계를 찾을 수 없다. 언어로부터 시작된 고립성은 이 지역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독립 정신으로 이어져오기도 했다.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으로 유명한 게르니카(Guernica)의 학살 사건도 빌바오 인근에서 벌어졌다.
- 바스크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지만, 자신들의 개성을 세계에 퍼뜨리기도 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베레모. 피레네 산맥의 목동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크고 둥글게 만든 모자는 각국의 군복 디자인에 활용되면서 세계적인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검은 베레모로 유명한 체 게바라도 북 스페인의 바스크 혈통을 이어받고 있다.
- 유럽 축구리그에 관심이 많은 팬들은 빌바오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또렷이 인식하고 있다. 다른 스페인의 대도시처럼 이곳에도 고유의 축구팀인 아틀레틱 빌바오가 존재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축구팀에는 오직 바스크 출신들만이 선수로 뛸 수 있다는 점이다. 레알 마드리드나 FC 바르셀로나 같은 팀이 전 세계의 슈퍼스타들을 모아 드림팀을 만들지만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틱 빌바오가 스페인 4대 명문 팀으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바스크 남자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들이라고 주장한다.

○ 빌바오시의 도약 원인

1. 문화도시 도약의 기폭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 20세기 전후의 도시 건축계에서는 '빌바오 효과'라는 말이 마법의 주문처럼 돌아다녔다. 시커먼 공해 도시 빌바오가 미술계 최고의 브랜드인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Bilbao)을 들여놓은 뒤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건물은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걸작이며, 2010년 세계의 건축 전문가들에 의해 최근 30년간 세워진 것 중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뽑히기도 했다(World Architecture Survey). 온갖 잡지의 표지에 이 건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오직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이 도시를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빌바오가 놀라운 것은 그 구겐하임을 진짜 이 도시에 딱 어울리는 건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변신했다는 사실이다.
- 1997년 프랭크 게리가 스페인 빌바오 지역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지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구겐하임미술관은 막대한 공사비용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실패된 미술관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미술관이 빌바오 지역의 경제, 문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다. 빌바오의 도시혁신은 종합전략 구상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되었다.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도시 내 버려진 항만 시설 및 철도부지인 아반도이바라 지역을 최신 복합 문화, 업무, 예술 중심지구로 변모시킨 도시재생전략의 핵심적 요소로서 도시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의 대표작이며 새로운 도시로 거듭난 빌바오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세계적인 미술재단 구겐하임재단이 1997년 10월 에스파냐 바스크(Basque) 지방의 빌바오(Bilbao)에 개관하였다. 구겐하임재단은 미국 철강계의 거물 솔로몬 구겐하임(Solomon R. Guggenheim)이 직접 수집한 현대 미술작품들을 보관·연구·전시하기 위하여 1937년에 세운 것으로, 1992년 뉴욕에 구겐하임미술관과 구겐하임미술관 소호를, 1995년 베네치아에 페기구겐하임 미술관을 세웠으며, 베를린과 라스베가스에도 분관이 있다.
- 1991년 바스크 지방정부는 빌바오가 몰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화산업이라고 판단하고 1억 달러를 들여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하였다. 이후 바스크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의 재원을 담당하고 프로젝트를 소유하며, 구겐하임재단은 미술관을 운영하고 주요 소장품을 제공하기로 협정을 맺고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설계로 7년 만에 건물을 완공하였다.
- 개관 당시 눈길을 사로잡은 길이 130m, 폭 30m에 이르는 건물 외관은 네르비온강에 정박한 선박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비행기 외장재인 티타늄 3만 3천 장으로 만든 미술관 외벽은 흐린 날에는 은빛, 맑은 날에는 금빛을 띠어 메탈 플라워(Metal flower)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개관 첫 해 136만 명을 비롯해 3년 만에 3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초기 투자액의 7배가 넘는 수익과 4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등 상당한 지역 경제 상승효과를 낳았다.
- 소장품은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클레이즈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설치 작품을 비롯하여 20세기 후반 40여 년에 걸쳐 미국과 서유럽에서 활동한 팝아트, 미니멀리즘, 개념

미술, 추상표현주의 계열의 뛰어난 작가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바스크와 에스파냐의 현대미술을 대표할 만한 작가들의 작품도 수집하여 현대미술의 최근 경향을 볼 수 있다.

2. 도시 재생을 위한 종합 전략 수립

- 1989년 바스크 정부는 빌바오 대도시권의 재생을 위한 종합 전략 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 추진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종합전략 구상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빌바오 메트로폴리스의 8가지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도시 재생전략을 추진하였다.

- 빌바오 메트로폴리스 8대 핵심 이슈는

- ① 혁신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와 융합된 대학교육 마련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 ② 기존의 전통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금융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2차 서비스산업 육성.
- ③ 글로벌 세계 경제체제에 부응하는 공항, 항만, 초고속철도 등 인프라 정비와 연계를 통한 접근성, 연계성 강화.
- ④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도시환경의 획기적 개선, 환경 친화적 기술의 활용,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와 협력 강화 등 환경재생의 지속적인 추진.
- ⑤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내부인프라의 질적 정비,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통한 도심부 정비, 주거수준 향상, 빌바오 대도시권 전체의 통합 강화.
- ⑥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문화·전시 공간 건립,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 공연·축제·음악회 등 세계적인 문화행사 유치, 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 정보 공급 등 문

화 인프라 확충의 종합적 추진.

- ⑦ 공공부문과 민간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체제 구축.
- ⑧ 도시 발전의 궁극적 목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강화와 시민의 사회 참여 촉진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대 강화.

3. 네르비온 강의 회복과 주변공간 개발

- 도시 개조 작업은 도시를 관통하는 네르비온 강 주변을 따라 추진되었다. 강변을 따라 발달한 구항구와 공업지역 재개발에 착수하여 부두 시설을 확장된 해안항만으로 이전시키고, 강으로 분리된 지역 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량을 건설하였다. 또한, 1983년 대홍수로 완전히 폐허가 된 구 도심부를 정비하고 강변의 주요 신 개발지를 연결하는 신교통 수단 트램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설치 등 많은 노력으로 다양한 기능이 재 집중된 활발한 지역으로 재탄생되었다.
- 빌바오의 주변 공간 개발은 환경적으로 강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초하고 있다. 네르비온강은 한때 산업폐수로 인해 죽음의 강으로 불렸는데, 15년간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설비용의 6배에 해당하는 8억 유로를 투자하여 현재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는 식수로 사용 가능할 만큼 수질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 투자한다고 한다.

4. 도시 재생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 빌바오 도시 재생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주요 요인으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인 추진체제를 들 수 있다. 위기에 처한 도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 빌바오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1991년 "빌바오 메트로폴리스 30"이란 지역협력체가 조직되었다. 쇠퇴하는 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빌바오 대도시권의 재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이 조직은 지역 내 130여 개의 공공행정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대학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교 및 연구소의 학자와 전문가 800여 명이 소속되어 있다.
- 또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로 1992년 "빌바오 리아 2000"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스크 지역정부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지역재생 실행을 위한 전문조직으로 발족하였다.

○ 시사할 점

- 상징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이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 단순히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도심재생을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 개발 수익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산책로 조성에 사용.

○ 정책제언

- 구겐하임 미술관 같이 상징적 건축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파급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이끌어야 함.
- 문화산업육성을 통한 도시재생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인식, 지역적 역량에 맞는 전략수립과 동시에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도시마케팅에 따른 전략적 접근 필요.
- 방치된 산업 자원을 경관자원으로의 활용방안 모색.

○ 결론

- 거창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장점을 살려나가 특별한 메리트를 개발해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절실히 필요함.

Ⅲ. 맺는말

- 이상으로 7박8일의 연수 기간이지만 포르투갈(리스본, 카보다로카)의 카보다로카 땅끝 마을, 벨렘 탑, 발견 기념비, 제로니무스, 수도원, 로시우 광장, 에두아르두 7세공원, 스페인(세비야, 그라나다, 코르도바, 마드리드, 톨레도, 바르셀로나)의 루이사 기념공원, 세비야 여성복지관 방문, 자전거도로 및 광장 모자이크, 히랄다 탑, 세비야 대성당, 에스파냐 광장, 황금의 집, 붉은 성 알 함브라 궁전, 헤네랄리페 정원, 알바이신지역, 플라멩코, 메스키타 회교사원, 유대인 거리 및 꽃길, 올리브 농장, 톨레도 대성당, 산토토메 교회, 톨레도 시청, 톨레도 의회, 마드리드 재래시장, 마드리드 시의회, 프라도 미술관, AVE초고속 열차, 지중해, 공영자전거시스템, 구엘 공원, 성 가족 교회, 가우디의 시내 작품들 등

고대 유적지 및 문화유산의 현장을 견학하면서 우리 일행들이 배우고 느낀 사항은 참으로 많았다.

- 이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분위기의 문화유산이나 특이한 부분에 대하여 느낀 소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 포르투갈(카보다로카, 리스본)

○ 문화유적 보존 관리 및 광장 및 보도블록 디자인

-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유적도시 리스본의 벨렘 탑은 1515~19년에 건설되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정치범 감옥으로 건축되었으나 관리의 소홀로 주변에 오물이 많이 떠 다니고 있어 찾는 관광객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였지만 건물 자체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었으며, 이어서 신천지 발견을 기념하기 위한 발견 기념비에서는 광장 바닥에 세계지도를 음양각으로 새겨넣어 관광객이 자기 나라를 한번 찾아보는 특이한 광장으로 꾸며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점을 간접 시사하고 있어 포르투갈인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 같았으며, 로시우 광장과 에두아르두 7세 공원은 광장 및 보도블록에 문양을 새겨넣어 예술적인 면과 시각적인 효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접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 있는 시설물(건물, 문화적 유물, 관광지)은 우리 군의 특산물인 화강석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화강석 도시답게 도시미관을 화강석으로 시공하여 오랜 기간 동안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관광 문화유적(유물)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문화유산 관리 정책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 자전거 경찰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 만난 자전거 경찰은 참 특이하기까지 했다. 공원 내 순찰목적과 교통지도 및 단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내 중심가를 순찰하며 순찰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대민봉사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면서 경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은 특이하면서도 경찰이라는 거리감보다는 친숙한 이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다. 우리 거창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 포르투갈의 도시환경 등

- 시내를 한눈에 내다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공원을 꾸며 공원에서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 벽화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며, 실용적인 쓰레기통 설치로 시내 환경을 청결히 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주차장을 나비형 덮개를 이용해 차량에게 그늘을 만들어줘 비, 눈, 바람 등을 막아주는 모습은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창에도 설치해 본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본다.

□ 스페인(세비야)

○ 루이사 기념공원과 여성복지회관, 자전거전용도로

- 루이사공원의 노란 흙은 퍼다가 투우장에 깔다고 하는데, 1893년에 몸반세공의 부인이 남편을 잃고 궁전 절반을 세비야시에 양도한 것이 기원이 되었다고 하며 공원의 모든 벤치는 도자기 조

각으로 모자이크하여 하나도 똑같은 벤치가 없었으며 벤치에 앉아 연주를 하는 악사들을 볼 때 너무나 평화스럽고 편안해 보였으며 거창의 벤치도 기성적으로 만들어진 일률적인 벤치를 설치하기보다는 작은 벤치 하나라도 거창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한다면 이것 또한 공공디자인이 될 것이다.

이어 방문한 여성복지관은 여성전용 복지관으로서 아침이면 남편들이 아내를 배려해주기 위해 장사진을 이룬다 하며, 남성출입금지로서 운영 자체를 행정에서는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거창군도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공원주변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자동차 없이 공원 및 시내를 다니고 있어 참 보기 좋았다. 자전거 전용도로 폭이 2m 정도로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교차가 가능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인 자전거를 이용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방지, 건강유지 등을 위해 거창군에서도 확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도입을 위해서는 거창군의 전체적인 정밀한 진단과 마스터 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문화유적 관리 및 활용

- 히탈다 탑은 세비야의 상징으로 높이가 97.5m이며 16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며 오래된 건물인 만큼 관리를 위해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하며, 세비야 성당은 무어인들이 이슬람교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100년에 걸쳐 건축을 하였다 하니 공사기간 만큼 소중한 유물로서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슬람교도의 흔

적을 모두 말살한 것이 아니라 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옛사람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 같았다. 에스파냐 광장은 스페인 사람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우월성을 나타낸 곳으로서 세비야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이기도 하다. 광장에는 정부청사의 각 부서가 들어가 업무를 보고 있고 작은 강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스페인의 특성상 작은 도시가 많은 만큼 반원의 형태로 지어 세계가 스페인을 중심으로 뻗어 나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건축하였으며, 지방성이 강한 스페인 사람들을 위해 벽면에는 자신이 속한 도시의 상징적인 타일 벽화를 부착하고 벤치를 만들어 스페인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 지방이 속한 곳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갈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이는 스페인 지방사람들의 자존심과 특색을 잘 활용한 아이디어로 보였다.

□ 스페인(그라나다)

○ 문화유적 관리 및 활용

- 알 함브라 궁전은 마지막 이슬람왕조인 나스르왕조의 무하마드 1세 알 갈리브가 13세기 후반에 시작하여 14세기에 완공한 것으로서 구릉 위에 3.5km의 성벽으로 쌓여 있으며, 이 궁전은 에스파냐가 그리스도교의 손으로 빼앗은 뒤에도 정중하게 보존되었고, 18세기에 한때 황폐되기도 하였으나 19세기 이후에 복원 완전하게 보존하여 이슬람 생활문화의 높이와 탐미적인 매력을 오늘날에 전하고 있으며, 이 궁전은 이슬람 특유의 문양과 8두의 사자가 받치고 있는 사자상 등 천정과 벽면은 아라베스크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기둥 등 모두가 정교하고 치밀하여 이슬람 미술의 정점을 형성하고 있다.

- 헤네랄리페 정원은 14세기 초에 여름별장으로 지었으며, 물이 귀한 땅에서 살아온 이슬람교도들은 여러 곳에 연못과 분수를 만들어 놓았고, 중앙에는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아라야네스 안뜰은 사각형의 연못이 있다.

□ 스페인(코르도바)

○ 문화유적 관리 및 활용

- 메스카타 회교사원은 23,000m²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회교사원이며 로마, 고딕, 비잔틴, 시리아, 페르시아 요소들이 혼합된 칼리프 스타일로 모든 아라비안-라틴 아메리카 건축물의 시작점이며, 850개 이상의 원주가 천장을 받치고 있고 가톨릭과 이슬람의 두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유대인이 살았던 골목은 아직까지 보존하며 꽃의 골목으로 승화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조그마한 역사적인 것도 놓치지 않는 스페인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 스페인(톨레도)

○ 문화유적 관리 및 활용

- 톨레도는 1561년 수도를 마드리드로 옮기기 전까지 스페인의 고도 수도로서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유대교 문화가 융합되어 있으며 톨레도 대성당은 266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493년에 완공하여 길이 113m 폭 57m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산토토메 교회는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천장을 뚫어 빛의 각도에 따라 교회의 신성한 조각들이 시시각각으로 아름답게 연출하도록 설계하여 참 인상적이었으며 앞선 건축기술을 잘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 지혜가 돋보인다.

○ 툴레도시청과 시의회 방문

- 툴레도 시청은 일요일인지라 당직자만 있고 실무자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나 옛 수도답게 오래된 건물을 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시청 앞 광장은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고 시청은 종합적인 정책과 민원부분만을 결정 시행하고 실질적인 일은 자체 유관 기관에 위임하여 집행을 하고 있어 우리같이 종합행정을 하는 것과는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았다. 툴레도 시의회는 시장, 기초의원을 구성하며, 주요재원은 사업소세와 재산세, 사용료 및 수수료 중앙정부의 포괄교부금, 지방채 등이 되며 재원 비중은 중앙정부 58.1%, 지역정부(주정부) 28.2%, 기초정부 13.7%이다.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자유롭게 선출하며 의회에서 선출된 시장의 권한은 자치경찰권, 공무원 임명권을 행사하고 임기는 4년이다. 스페인의 시의회는 지방의회 중심의 정책 집행력을 보장해 주고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살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살리고 있어 거창군의회와는 다른 제도였으나 좀 더 발전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 스페인(마드리드)

○ 문화유적 관리 및 활용

- 프라도 미술관은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며, 회화관으로는 세계 최대로 소장품은 6,000점으로 전시는 3,000점에 이르고 있었으며, 미술관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으며 미술품 보존을 위해 카메라는 전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마드리드 재래시장 방문

- 스페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재래시장을 중간에 들러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였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재래시장은 사면이 개방형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내부에는 우리나라의 난전에 해당하는 스탠드 바 정도의 가게들도 많이 있었고 사면을 유리로 만들어 내부를 바깥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장 부분을 이중 지붕으로 설계하여, 과일부터 해산물까지 조그마하게 코너별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 거창군도 항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사면이 보이게 코너별 품목별 배치를 한다면 좁은 공간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 마드리드 시의회 방문

- 스페인 의회를 코르테스로 호칭되며 국회의회로 불리워진다. 마드리드 시의회는 레알마드리드 축구팀을 위해 3억 5천 달러를 들여 훈련장을 조성하고 체질량지수(BMI)가 최소한 18 이상 되는 모델들만 패션쇼에 참가시키는 등 우리나라 의회의 역할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지역의회를 중심으로 기관통합형 조직과 책임제 형태의 집행부를 구성하여 의회가 정책집행을 책임지고 있었다.

□ 스페인(바르셀로나)

○ 문화유적 관리 및 활용

- 바르셀로나는 인구 170만 명의 제2의 도시이며 고딕지구에는 13세기~15세기의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시청사나 자치정부 청

사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라 한다. 예술인의 고장이기도 하며 스페인이면서도 스페인이라기보다는 카탈리나인으로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카탈리나 국기가 내걸렸더니 민족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나 유적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엘 공원은 1922년부터 조성되어 동화속의 집처럼 가우디의 작품들이 많이 있으며 86개의 기둥이 늘어선 공간 천장의 모자이크는 균형과 대칭을 이루고 있었으며, 가우디의 성가족 교회는 1882년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앞으로 건축될 부분은 170m의 중앙 탑과 성모마리아를 상징하는 140m의 탑부분으로 앞으로 100~200년은 걸린다고 한다. 4차원적인 건축양식과 균형감을 유지하며 어떻게 이 어머어마한 건축물 공사를 했을까가 가장 궁금하였는데 가우디는 설계도면 하나 없이 모형을 거꾸로 만들어 거울을 비춰가며 건축을 해 나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고 스페인이 자랑할 만한 인물인 것 같았다. 바르셀로나 시내에도 가우디가 건축한 건축물이 아직도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며 건축물 하나하나의 작품성과 예술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현재의 주인들도 사용을 하지만 보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 공영자전거 시스템 운영

- 바르셀로나는 친환경 도시로서 공영자전거로 빨간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용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승강장처럼 자전거 거치대 옆에 시내 안내도 및 카드기가 있어 카드를 이용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 버스 승강장인 줄 알았는데 자전거

거치대 및 자전거 승강장인 셈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용자가 잘 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듯이 우리 일행이 그 많은 자전거를 일일이 점검을 해 보았더니 고장 난 자전거나 30~40%나 되었으며, 관리에 있어 허술한 면을 엿볼 수 있었다. 거창군도 조만간 국가시책인 친환경 저탄소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리라 생각되는데 차후 시행 시 제도상, 운영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또한 우리 지역과 비슷한 분위기의 문화유산은 첫째 그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역대 유명 왕들, 성인들, 가우디 등)들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자원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인물과 한국의 인물을 찾아내서 세계인들의 관심사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우선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 천왕과 우륵의 고향이 가조라는 것도 좋은 테마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둘째 오랜 역사를 지닌 유물과 유적지였으니 우리 지역에도 잘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예를 들면 복원이 시급한 거열산성이나, 고가마을, 고택 등과 거창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들도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으며,
- 이번 연수를 통하여 보고 얻은 지식을 바로 군정에 접목시키기에는 우리 지역의 여건상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포르투갈의 자전거경찰제, 광장 및 보도블록 디자인, 스페인의 자전거 전용도로, 톨레도 시청 및 시의회, 마드리드 재래시장, 시의회, 가우디의 건축물, 공영자전거시스템 운영 및 방문을 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철강도시 빌바오가 치밀한 계획 하에 관광도시로 탈바꿈하여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우리 군의 군정에 도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가 많았으며, 이번 서유럽 2개국 해외 연수를 통하여 세계적인 안목을 넓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또한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끝으로, 지난 7박 8일 동안 서유럽 2개국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를 무사히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